

“맛·멋 가득’ 영광서 여름휴가 즐겨요”

군, 백수해안도로·물무산행복숲 등 관광지 추천 불갑사·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종교 성지도

영광군이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체험 거리, 맛과 멋이 가득한 영광 주요 관광지를 여름휴가 여행지로 추천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백수해안도로는 2018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관광지로서 선정된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연인,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고 경치가 아름다운 카페와 펜션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은 세계의 노을과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갖춰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석양이 물드는 시간에 맞춰 노을을 배경으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된다. 영광의 명품 4대 종교 성지의 역사 문화유적지에서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전년고찰 불갑사는 산속에 있는 사찰로 입구부터 불갑사까지 집은

녹음으로 우거져 사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주변의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메타세쿼이아 길은 햇살 아래 사색에 젖어 산책할 만 한 장소로 꼽힌다.

또한 기독교의 경우 6·25 당시 순교자 77명이 숨진 영광 염산교회와 65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아월교회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지인 원불교 영산성지,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도착해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조선시대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신자를 추모하는 천주교순교기념관도 있다.

지난 13일에 개장한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수심 1~2m로 물이 깨끗하고 수온이 높아 해수욕하기에 적합하고, 저녁에는 갈매기바다에 올랐

망 떠있는 섬들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나조를 감상할 수 있다.

영광 물무산행복숲은 산림복지숲으로 피톤치드가 많고 계단과 경사가 없는 순환형 숲길이다. 질퍽질퍽 맨발 활로길,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 등을 둘러갈 곳곳에 배치해 이용객들이 쉬어갈 수 있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광에서의 여름여행을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영광 스탬프투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행도 즐기고 영광군의 특산물 선물도 받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담양, 슬로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

발전 전략 수립 용역...거점 확대·조례제정 추진

담양군이 슬로시티 지역 확대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담양 발전을 위한 슬로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담양의 정자문화와 가사문학, 인문학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 슬로시티 '담양 발전 전략 수립 기본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1차 거점 지역인 장평면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2차 거점 지역 확대, 지역의 핵심 콘텐츠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 미래유산과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슬로시티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슬로시티 확대에 따른 명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와 지역별 슬로시티 거점마을 육성지원 근거도

마련해 나간다.

이밖에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위원회 관계자 선진지 벤치마킹과 슬로시티 홈페이지 개편, 유흥지를 활용한 목화, 봉숭아, 맨드라미 5천여본을 식재해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장평슬로시티 거점화에도 속도를 낸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피렌체 지방이 시민의 힘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중세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이 우리 지역도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와 인문학을 기반으로 문화, 체험, 관광을 접목한 융복합화로 담양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장흥,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본격 추진

2주 1회 안마서비스

장흥군은 최근 대덕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군의 신규시책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문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안마사2명과 보조인력2명을 채용해 4인 1조로 진행된다.

장흥군 10개 읍면 취약장애인 가정을 주 3회 순회하며 서비스 실시 예정으로, 수혜대상자 1인당 2주에 1회 안마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와 단절돼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고독감 해소와 마비된 신체 기능 회복은 가장 큰 숙원이다.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경진 기자 kimjg@

나주, 민·관 협치로 악취 문제 푼다

환경 모니터링 요원 모집...25일까지 접수

악취발생 사업장 모니터링·불법행위 계도 등

나주시가 지역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악취발생 사업장과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활동에 참여할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선별한다. 시는 16일부터 25일까지 올해 혁신도시와 원도시 지역에 2인 1조로 나뉘어 활동하게 될 환경모니터링 요원 4명을 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해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된 환경모니터링 요원 4명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활동 범위를 넓혀, 혁신도시와 더불어 악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산·왕곡면 등 원도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계획에 따르면,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55세 이상 시민'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지리에 밝고, 축산농가주들의 주 연령대를 감안해, 원활한 계도 활동이 이뤄지기 위함이다.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전 요원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악취 발생 사업장 모니터링, 환경 불법행위 계도 및 정화활동, 악취 관련 법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를 고려해, 요원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들의 숙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요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맡은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시도 혁신도시 주변 축산 폐업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악취 근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니터링 요원 지원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신민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25일 이틀간 시청 환경관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061-339-8953)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나주=김유우 기자 yoonk@

영암, 재산세 63억1천만원 부과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천269건 6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2천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액 기준액 상승(㎡당 67만원→69만원) 및 개별주택 가격 3.01% 상승, 공장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탁스마트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증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